

방치 건물 아틀리에 변신...300일 작가-관람객 만남

나눔·교류·소통...
**공유 경제,
문화 예술을 입다**

파리 = 김미은 기자

요즘 부쩍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공유경제(Sharing economy)다. 공유 경제는 물품, 공간 등을 독점하지 않고 타인과 빌려쓰고 나눠쓰는 개념이다. 공유경제는 당초 비어 있는 방을 나눠쓰는 '에어 비엔비' 등 차, 집, 주차 공간, 사무실 등 유형자산이 그 대상이었다. 최근에는 경험과 지식 등 무형자산을 함께 나누는 경우도 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독일,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시사주간지 타임은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가지 방법'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공유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공유 경제,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바라보다'를 주제로 한 기획취재에 다녀왔다. 이미 공유경제 모델이 자리를 잡은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의 현장을 둘러보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 허브 등 국내 사례를 살펴보았다.

해외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 모델들은 버려졌던 공간들을 재생한 경우가 많다. 맥주공장, 정례용품 제작소, 병원, 영화촬영소 등이 모두 문화 공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지역 사회와의 밀착이다. 예술가들과 주민, 관광객들까지 아우르는 소통과 교류가 가장 눈에 띄었다.

광주·전남은 아직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버려진 공간들이 산재하고, 또 일부 공간들을 예술인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효율성에서는 아쉬움도 많다.

물론 현장 취재에서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의 밝은 면만 본 건 아니었다.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문화'가 중심이었던 공간이 점차 '상업' 공간으로 변모한 곳도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폐허가 된 건물을 작가들이 점령, 아틀리에로 변신시킨 파리 '로베르네 집'은 주 6일 작업실을 오픈, 관객과 소통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위)

파리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로베르네 집은 매년 건물 외벽을 다양한 설치미술로 장식하고 오픈 퍼포먼스를 갖는다. 지난 5월에 열렸던 오프닝 행사.

(로베르네 집 제공)



1 파리 로베르네 집

프랑스 파리 중심가 리블리(Livoli)가 59번지 위치한 로베르네 집(Chez Robert Libre)은 유쾌한 문화 공간이다. 알록달록 장갑들이 내걸린 입구부터, 대형 설치미술이 걸린 건물 외벽, 계단을 타고 올라가며 만날 수 있는 자유분방한 작업실까지 예술가들의 '끼'가 가득하다.

7층까지 이어지는 계단, 화장실, 휴게 공간 등 모든 곳이 작품이고, 볼거리다. 30여개의 작업실은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어느 작업실이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다. 광주를 비롯한 국

들이 널려 있는 공간이었지만 초창기 모여든 10여명의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창작 활동을 하며 시민들에게도 공간을 오픈하기 시작했다.

무단 점거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고발되기도 했지만 이들을 지원한 변호사, 언론, 지역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파리의 동의하에 59 리블리협회를 설립,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3년마다 파리와 입주 기간 갱신하고 있다.

'로베르네 집'은 현재 파리시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지만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고 있다. 한해 운영비는 약 6만 유로. 이중 입주작가들이 매달 내는 130유로로 5만 유로 정도를 모으고 나머지는 프랑스의 회화용품 제작회사인 경승사와의 협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월요일과 공휴일(크리스마스, 1월1일)을 제외하고 속소를 제외한 전 공간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는 게 원칙이다. 일주일에 한차례는 각 작가들이 돌아가며 1층 데스크에서 방문객을 안내한다. 매일 작업실에서 시민들을 만나야 하는 터라 "작업실에서 시민들에게 친절할 것"이 로베르네 집의 중요한 입주 조건 중 하나다.

7층 건물에 32개 작업실, 2개의 공동 전시실을 갖춘 공간에서는 현재 20개국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작가들이 거주하고 있다. 문이 울타리 없이 각 층별로 3~7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거주 예술인들은 대부분 화가들이지만 다른 장르와의 교류도 활발하다. 휴가철인 8월을 제외하고는 매주 주말 음악 콘서트를 열고 있으며 1층 오픈 갤러리에서 매년 다양한 전시를 열고 있다. 특히 3~4개월에 한번씩 건물 전면 디자인을 변경하고 공개하는 날은 유쾌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또 학교, 유치원, 그룹 등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거주 아티스트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순히 작업을 할 '벽'이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작가들의 소박한 꿈이 아무런 용도도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공간을 통해 이뤄졌다. 로베르네 집은 공간과 작업과정 공개를 통해 작가와 작가, 작가와 대중이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1999년 점거 이틀날부터 참여한 로베르네 집 회계 담당 파스칼 푸카르르씨는 "공간의 개방과 공유가 로베르네 집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mekim@kwangju.co.kr

1999년 버려진 건물 작가들 점령

주 6일 작업실 의무적 공개 원칙

작가간 교류·대중과 소통 '밀착형 공간'

30명 작가 월 130유로 내고 공간 공유

내에도 작가들이 상주하는 레지던스 공간들이 많지만 이렇게 외부인에게 활짝 열려있는 곳은 드물다.

이번 기획 취재에서 규모는 가장 작지만 가장 인상적인 공간이 바로 로베르네 집이었다. 버려진 건물을 활용한 문화공간은 많지만 로베르네 집처럼 지역민들과 완벽하게 호흡하는 곳은 드물었다. '로베르네 집'은 시민속으로 완전히 파고든 밀착형 공간이었다.

'로베르네 집'은 도심 한복판 버려진 건물을 점거한 젊은 예술가들이 완성해낸 레지던스 공간이다.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이야기는 유쾌한 한편의 드라마다.

건물의 내력은 이렇다. 당초 프랑스 정부와 크레딧 은행 공동소유였던 건물은 은행이 파산하면서 소유권인 정부기관인 부동산회사 CDR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다.

14년 넘게 폐허처럼 남아있던 공간을 현 대표 가스파르 플라노에 등 3명의 예술가들이 점령한 게 지난 1999년이었다.

유리창은 다 깨진 상태고, 건물 옥상엔 비둘기 시체

상주작가 레카 세바스찬씨

“관람객과의 소통 즐거워”

로베르네 집에 상주하고 있는 레카 세바스찬(41·Lecca Sebastien) 씨는 페투에서 출생해 프랑스에서 자란 미술가다. 지난 2009년 로베르네집에 입주해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는 에펠탑을 소재로 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친구들의 초청으로 한시적으로 머물 계획이었지만 로베르네 집에 매료돼 5년째 거주하고 있다. 파리 중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작가들과의 교류 및 협업이 가능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이 된다."

로베르네 집에서는 매일 작업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기 때문에 관람객과의 소통이 자연스럽다. 작업중 번거롭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노우(NO)'라고 답했다.

"사람들이 늘 지나다녀 익숙하다. 당신의 질문에 답변해서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다. 관람객들은 아티스트들의 작업 과정을 잘 모르지만 아티스트들도 관람객이 내 작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

로카씨는 "관람객들의 질문 중 빠지지 않는 게 작품 가격이다. 관람객들과 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작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비스표등록증
등록번호 41-0241299호
5-18낙지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

상표등록 : 41-0241299호